

지역 매 아 리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조남출)가 지난 6일 소방공무원 및 지사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대처능력 및 신속한 출동을 위한 2017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부안지사는 이날 부안소방서와 함께 건물 내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행동요령 숙지하는 등 소방시설을 이용한 화재 초기 진압과 부상대원 응급조치 등 종합훈련으로 응급 조치요령과 육의 소화전 등 소화설비 사용법을 숙지했다.

조남출 지사장은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민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을 미리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지속적인 예찰과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

정읍시, 내달 1일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도 인상

정읍시가 12월 1일부터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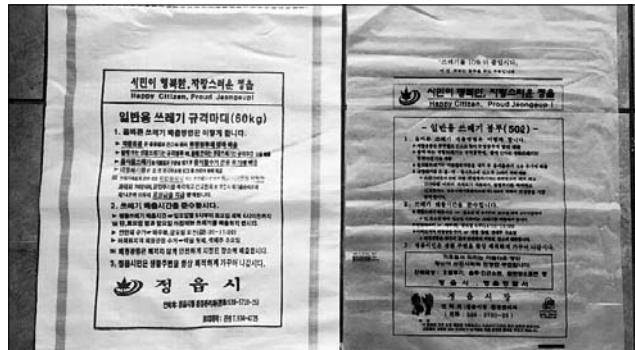
이번 인상은 쓰레기 봉투 요금 현실화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12.1.) 1차 인상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시는 “청소 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로 계속 동결돼 청소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2단계(1단계 2016. 12. 1, 2단계 2017. 12. 1.)에 계획에 따라 현실화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1단계 인상 이후 현재 정읍시 봉투 가격은 전북도 내 평균 85% 수준 까지 끌어 올렸으며, 2단계 인상(2017.12.1.)까지 마치면 전북도 내 평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2단계 인상에서는 ▲5 1 90원 ▲10 1 170원 ▲20 1 310원 ▲50 1는



정읍시 쓰레기 규격봉투

770원 ▲규격마대 3천원, 물운박스 15만4000원으로 재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도 인상되는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www.jongup.go.kr) 팝업 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값 현실화를 통해 청소 재정을 견진화하는 물론 인상분을 청소행정 서비스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청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며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다산 정신 재조명 현대적 의미 되새기다

정읍기적의도서관 ‘한 권의 책 문학기행’ 전남 강진 답사

정읍기적의도서관은 최근 ‘한 권의 책’ 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학기행으로 전남 강진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문학기행에는 올해 기적의 도서관에서 진행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체취가 어린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찾아 다산의 인문학적인 사고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다산이 다산초당에서 백련사까지 왕래했다는 오솔길을 걸으며 다산 정신을 재조명하고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또 ‘모리이 피기까지는’의 시인 영랑 생사를 방문, 영랑의 일대기 연찬과 함께 영랑사를 찾기도 했다.

기적의 도서관 관계자는 “한 권의 책 독서운동을 위해 도서 선정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 분야에서 노력하신 분들과 독서 동아리 및 책상, 도서관 운영위원, 도서관 우수 이용자들이 함께 하는 문학기행을 통해 ‘한 권의 책’ 독서



정읍기적의도서관은 최근 ‘한 권의 책’ 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학기행으로 전남 강진 답사를 진행했다.

로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강윤중 지음)가, 이동도서로 ‘건수동생 강건미(박서진 지음)’가 선정된 바 있다. 선포식은 지난 4월 8일 있었으나, 기적의 도서관은 선포식 후 지속적인 독서 텔레비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봉주를 선택했습니다.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봉주와 함께 오디주의 침'맛'을 느껴보세요.

오늘날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너머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깊은 품질로 높았습니다.
부안의 벼사반도 청정해역의 해물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담도와 질이 아주 특별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은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양한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4호 | 500ml 2ea/12%, 복분자 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침봉 2ea/12%, 복분자 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면, 1읍면 1명소 가꾸기 사업 상포 바닷가 힐링공간 조성 구슬땀

고창군(군수 박우정) 부안면이 낙조가 아름다운 상포 바닷가 힐링공간 조성에 구슬땀을 쏟아내고 있다.

1읍면 1명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고 있는 상포바닷가는 부안면 상암리 620-1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령이 250여년 된 노거수(팽나무)와 상포정이라는 정자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도 참으로 아름다운 장소이다.

또한, 상포바닷가는 랍사로 습지로 지정된 고창 갯벌과 나조의 아름다움이 한데 어우러져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힐링까지 선물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부안면은 상포 바닷가를 또 하나의 명품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바닷가



주변 잡목과 우거진 대나무를 제거하고 상포정 입구에 위치한 노거수를 정비하는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배기영 부안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명소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해양경찰서, 사고 다발 지역·지형지물 담사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7일 상황실 근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각종 해양지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처리를 위해 관내 주요 사고 다발 지역 및 주요 지형지물 담사에 나섰다.

이번 치안현장 담사는 지형지물 및 현장을 이해하고 지역민이 흔히 부르는 명칭을 숙지해 신속 정확한 상황처리 능력을 강화하려고 진행됐으며, 특히 고립 및 해상주락 발생지, 낚시객 주요 하선 갯바위, 행락객 진입 인구 암초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담사하였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서, 내부고객 대화 통한 고민 해결 앞장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직원들과 진술한 대화를 통한 고민 해결에 앞장서고 있어 내부고객들로부터 찬찬한 호응을 얻고 있다.

대화 창구를 이용한 직원은 “혼자 고집하는 것보다 청문기능과 진정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적극 이용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북면, 특수시책 수익금 이웃사랑 실천

정읍시 북면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유기유지에 고구마를 재배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했다.

먼저 유기농지 등으로 일자리 면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고구마를 재배했다. 그리고 최근 500kg을 수확·판매 수익금으로 쌀을 구입해서 홀로

사는 노인과 한 부모 세대 등 모두 20세대에 전달하고 위로 격려했다.

특히 면 직원들은 세대를 방문, 쌀을 전달하며 생활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검토하는 등 지역민들의 복지체감도 높이기에 총력을 쏟았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강산봉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